

# 경북도, 통합신공항 트라이앵글 전략 구체화

통합신공항 연계 전략 기약 잡혀  
4대 분야·13개 역점 과제 구성  
테마파크·박물관·아울렛 등 조성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지난 8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경북도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는 공항 건설에 따라, 지역의 산업·물류 분야는 물론, 공항서비스,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크게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 전략 (신공항·건설신도시 조성 및 광역 교통망 연결·연계 산업 육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계산업 분야의 밑그림인 '통합신

공항 연계 전략구상(안)'은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가 최근 마련한 구상(안)은 4대 분야 13개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우선, 공항인프라 및 연관산업 육성, 항공연계 인력양성, 공항연계 관광활성화 전략 등에 약 50여 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항인프라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에서는 군위·의성 지역에 200만평 규모의 공항 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최대 항공부품 소재단지 및 전자부품 기업 집적화 등 'ICT 기반 공항경제권'을 만들 계획이며, 통합신공항 항공물류단지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 추진으로 관세유보, 조세 감면, 기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동남권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입 거점을 육성하고,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풀필먼트(Full fillment)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마련해 경북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연계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항공관련 전문인력 양성학과 개설, 항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내 청년들에게 공항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공항연계 관광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신공항 테마파크 조성하고 함께 첨단 ICT아트박물관, 군수 시뮬레이션 센터, 메디컬복합단지, K-군용품 아울렛 등도 포함 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공항과 연계되는 지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공항분야 조직 강화와 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공항연계 발전전략 구상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고양시는 2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에 발신자 전화번호 출력자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고양시

## 고양시 상점가 출입자 관리 강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QR코드 및 수기대장작성의 출입자 관리방식을 출입자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남기는 간편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력자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출입자 본인이 휴대전화 발신을 통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통화기록을 서버에 남기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력자 관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출입구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이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다.

시는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곳과 일산서문 상점가 1곳 등 4곳을 대상으로 우선운영하고, 대구모집포부터 중소형마트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시는 지역 노동시장 특성 반영한 노동정책 연구·개발과 노동사회 거버넌스 허브 기능을 담당할 '부산시 노동권익센터'를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 부산시, 영남권 최초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무사 13명 근무, 노동행정 서비스

부산시가 영남권 최초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으로 개소식은 연기했지만 전례 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하며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가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센터에서는 ▲부산형 노동정책 기획·연구 ▲전문 노무사의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협력적 노동 거버넌스 구축 사업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캠페인 사업 등을 수행한다.

노무사 등 13명이 근무하면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나주시-삼성·LG전자, 수해복구 맞손

# 나주 수해 이재민에 가전할인

양사에 다양한 경로로 협력요청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구매혜택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나주지역 수해 이재민을 위한 가전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LG전자는 전국의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가전제품을 20%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까지 제품 판매액의 30%를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주기 했다.

나주지역은 지난 달 집중호우와 하천 제방 붕괴 등으로 다시며를 비롯한 관내 121가구가 주택 침수피해를 겪었다. 가구마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대부분이 고장 나거나 소실되면서 재구매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만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수해 복구 총력전을 펼쳐오고 있는 나주시는 가전제품 구매에 따른 이재민의 경제적



강인규 나주시장이 침수 주택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 기업의 협력을 요청해왔다.

양 그룹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수해 이재민은 해당 기간 LG·삼성 가전제품 대리점 방문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각각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부분의 침수 가구에서 새롭게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준 가전 양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예천군 전경 /예천군

## 예천군 중소기업 전자금 신청·접수

예천군은 추석을 맞아 인건비·원부자재 구입비 등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5일 까지 '중소기업 전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전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자금 대출 금리를 일부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돕는 사업이다.

융자는 농협, 새마을금고, 국민 등 14개 협력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이며 우대업체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약정 상환이며 군은 1년간 대출이자 2%를 보전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 11개 업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마을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 기업 등 8개 업종이 해당된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 목포시,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 배치

66명 투입... 안심 관광 환경 조성

목포시가 주요 관광지 곳곳에 코로나 방역요원을 배치하며 안심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관광지 등 25개소에 방역·관리요원 총 66명이 투입되어 진행된다.

시는 근대역사관1·2관, 춤추는바다분수, 유달유원지,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관광지와 교통 거점지에 방역요원을 지정 배치해 관광지 수시방역,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지도, 안전관광 환경점검 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관리요원을 적



목포시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 66명을 지정·배치한다. /목포시

재적소에 배치해 안전여행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이외에도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방역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추진하며 안심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전남도, 잘못된 지명 461건 일제 정비

여수시 458건·신안군 3건

전라남도는 잘못된 지명 등 정비를 위해 '전라남도지명위원회'에서 여수시 458건, 신안군 3건의 지명을 심의·의결,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본식 지명 등 일제조사 정비' 일환으로 여수시 해상교량 지명 제정 1건을 비롯 신규부여 439건, 폐지 18건과 신안군 해상교량 지명 제정 3건에 대해 이뤄졌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에서 화정면

조발도를 잇는 해상교량은 화양면민과 조발도 주민의 합의를 거쳐 '화양조발대교'로 심의·의결했다.

또 예로부터 여수 주민들 사이에 고시되지 않고 불리던 지명 439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명을 신규로 부여했다.

신규 부여된 지명은 엑스포터널(여수시 평여동)을 비롯 여천역삼거리(여수시 여천동), 묘도대교(여수시 묘도동), 종기산(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채양산(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당산공원다리(여수시 남면 안도리) 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